

# 올해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



## 상쾌한 출발

하프코스 출전자들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출발지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나서고 있다.



## “우리는 원시인”

하프코스에 출전한 ‘고창 고인돌마라톤동호회’ 회원들이 고인돌로 유명한 고창을 홍보하기 위해 원시인 복장으로 레이스를 펼쳐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.



## “아빠 최고”

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참가자에게 응원 나온 딸이 격려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.



## “앗! 쥐가”

한 참가자가 레이스 도중 발에 쥐가나자 스프레이를 뿌리며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.



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5km코스, 출발신호가 울리자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.



## 출발 전 마사지

동신대 생활체육학과 여가복지동아리 회원(지도교수 김흥식)이 스포츠마사지·테이핑 기술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.